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 용 수 | (주)평화엔지니어링 전문  
(lyswater@hanmail.net)

# 밀양강 발원지 답사기

일시 : 2013년 3월 16일

## 1. 밀양강 개요

아랑(阿娘)의 전설이 유유히 흐르는 밀양의 영남루에서 서서 그 아래를 흐르는 밀양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 억울하게 죽어간 아랑이 금방이라도 다가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석양은 강물을 감싸 안으며 고즈넉이 말없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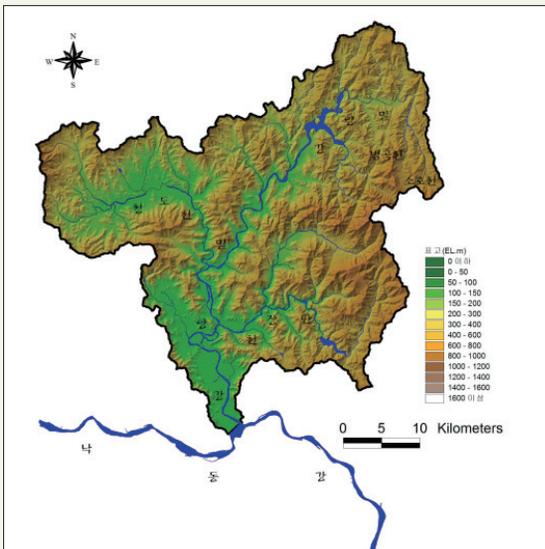
낙동강의 지류 중 중규모로 큰 지류인 밀양강(密陽江)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고현산(高獻山, EL.1,034.1m)에서 발원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까지 북류하고 다시 서류하면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을 지난 후

남서류하면서 다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에서 남류하여 밀양 시내를 지나고 삼랑진에서 낙동강에 좌 합류하는 하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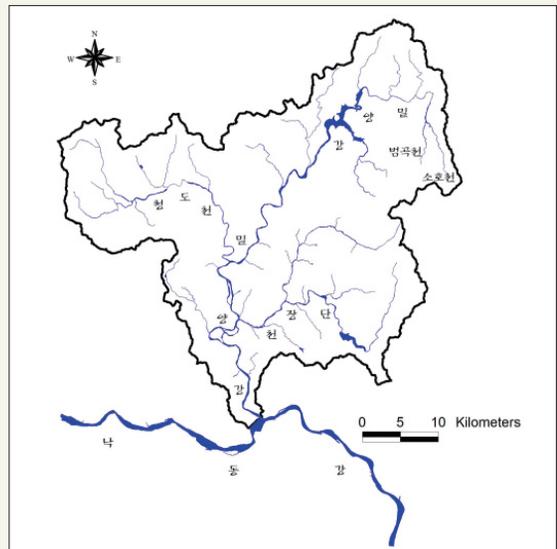
밀양강은 3개 시도를 넘나들면서 인근에 소재한 각 고을에 문화적인 영향을 주면서 흐르는 것이다. 즉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서 발원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을 지나, 경상북도 청도군 및 경상남도 밀양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밀양강 유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양강은 동경 128°31'20" ~ 129°07'02", 북위 35°22'18" ~ 35°50'43" 사이에 있으며, 유역면적은 낙동강유역의 6.0%



밀양강유역 표고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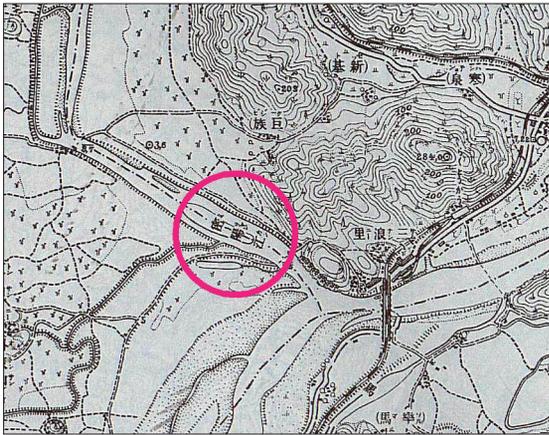
밀양강유역 하천분포도

에 해당하는 1,422.30㎢이고, 유로연장은 99.43km, 최원유로연장은 99.61km이다. 유역둘레는 253.79km이고, 유역평균폭은 14.28km, 유역평균표고는 EL.319.9m, 유역평균경사는 38.40%이다.

밀양강 동쪽으로는 낙동정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형산강 및 태화강유역과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호강유역과 남쪽과 서쪽으로는 낙동강과 접해 있다.

유역면적 중 산림면적은 1,063.2㎢로 유역면적의 74.8%를 차지하며, 농경지 면적은 322.92㎢로 유역면적의 22.7%를 차지한다. 기타 도심지, 초지, 나대지, 수역 등은 유역면적의 2.5%인 36.18㎢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밀양강은 언제부터 “밀양강”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조선전도상의 밀양강 하구

옛 문헌상에 있는 밀양강의 또 다른 이름은 응천(凝川)이다. 응천의 ‘응(凝)’자는 영길 응자이므로, 물이 서로 ‘뒤엉킨다’는 뜻인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말까지 불렸던 이름이고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1916년부터 1927년에 걸쳐 발행한 오만분의일 축적 지도인 조선전도에 보면 밀양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 경주부 밀양도호부편에 “해양강(海陽江)은 영산(靈山)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동(東)으로 양산(梁山) 경계로 들어간다. 응천(凝川)은 그 근원이 둘이니, 하나는 경주(慶州) 서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청도(淸道) 서쪽에서 나와서, 유천역(楡川驛)에서 합류(合流)하여 남동(南東)으로 흘러서 부성(府城) 동쪽을 지나 남쪽으로 해양강(海陽江)으로 들어간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의 밀양강은 조선시대에 응천(凝川)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6권 경상도(慶尙道) 청도군(淸道郡)의 산천편에 “자천(紫川) 군의 북쪽 5리에 있다. 근원은 밀양부 비슬산(毘瑟山)에서 나와서 유천(楡川)에 이르러, 운문천(雲門川)과 합치고 동부(同府)의 추화산(推火山) 동쪽에 이르러 재악천(載岳川)과 합쳐서 성(城) 남쪽에 이르러 응천(凝川)이 된다. 운문천(雲門川) 군의 동쪽 90리에 있다. 근원은 운문산에서 나와서 유천에 이르러 자천과 합친다. 유천(楡川) 군의 남쪽 40리에 있다. 곧 자천과 운문천이 합치는 곳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현재의 청도천을 자천(紫川)으로, 동창천을 운문천(雲門川), 단장천을 재악천(載岳川)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이 세 하천이 합쳐 현재의 밀양강인 응천(凝川)이 되어 비로소 밀양 시내를 관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운문천의 발원지를 운문산으로 본다.



대동여지도상의 밀양강 발원지 인근

또한, 제26권 경상도(慶尙道)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의 산천편에 “해양강(海陽江) 부의 남쪽 34리에 있다. 일명 뇌진(磊津)이고, 김해(金海)와의 경계이다. 응천(凝川) 부의 남

1) 한국고전종합DB -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쪽 성(城) 밑에 있다. 그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청도군의 동쪽에 있는 운문산(雲門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풍각현의 북쪽에 있는 비슬산에서 나와서 청도군 유천역(楡川驛) 곁에 이르러 합류하여 부의 성의 남문(南門)을 지나 해양강으로 들어간다. 월영연(月盈淵) 부의 동쪽 7리에 있다. 재악의 물이 추화산 동쪽에 이르러 응천으로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현재 밀양강이 낙동강에 합쳐진 이후 낙동강의 옛 이름이 해양강(海陽江)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한말 조선왕조시대에 마지막으로 편찬된 총체적 문물정리 사업의 결과인 『증보문헌비고』 번역문<sup>2)</sup> 『제20권/여지고 8/산천 2/내/낙동강』 편에 보면 “【응천(凝川)】: 근원이 현 풍(玄風)의 비슬산(毘瑟山)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자천(紫川)이 되고, 풍각천(豐角川)을 지나 청도군(淸道郡)을 돌아서 오혜산(烏惠山)에 이르러 남쪽으로 청도(淸道)의 운문천(雲門川)을 지난다. 또 남쪽으로 흘러 유천(楡川)·월영연(月盈淵)이 되고, 재악산천(載岳山川)을 지나 밀양부(密陽府) 앞을 경유하여 울림(栗林)으로부터 남쪽으로 무흘천(無訖川)이 되어 해양도(海陽渡)에 들어간다. 【운문천(雲門川)】: 근원이 청도(淸道)의 운문산(雲門山)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약야계(若耶溪)가 되고, 공암천(孔巖川)을 지나 낙화암(落花巖)·선암(仙巖)을 경유하여 오혜산(烏惠山)에 이르러 동쪽으로 응천(凝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의 밀양강은 조선시대에 응천(凝川)으로 불렸으며 발원지가 운문천(雲門川) 발원지인 운문산(雲門山)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한국하천지명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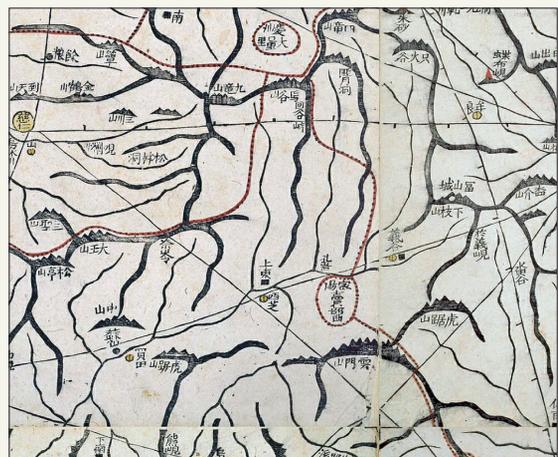
“**밀양강. 密陽江 Miryanggang** 2006950 [異] 남천강(南川江), 해양강(海陽江), 뇌진(磊津), 응천(凝川), 삼랑진(三浪津), 활용강(活龍江), 경상남도 밀양시 일대를 흐르는 유로연장 101.5km, 유역면적 1,421.3km<sup>2</sup>의 국가하천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에서 청도천과 동창천이 합쳐져 밀양강이 된다. 밀양 시내를 휘돌아 남류하고 밀양시 삼랑진을 삼랑진리

에 이르러 낙동강 본류에 합류한다. 이 강은 밀양시를 대표할 만한 강이므로 고을 이름을 붙여 밀양강이 되었다.

밀양의 옛 이름이 ‘미리벌’인데 ‘미리’는 용(龍)과 함께 물의 어원이 되므로 ‘물벌’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리벌은 신라 때 추화군(推火郡)이 되었는데 ‘미리밀-추-(推)와 ‘벌불-화(火)’로 훈차되었기 때문이다. 옛 문헌에는 밀양읍내 남쪽을 해양강, 그 상류가 되는 동창천은 따로 구분하여 응천이라 하였고 하류는 뇌진 낙동강과 합류되는 나루는 세 가지 물이 모인다는 뜻에서 삼랑진이라 한다. 남천강이라고도 하는데 ‘남천’은 우리말의 ‘앞나갈’ 또는 ‘앞내강’을 뜻한다. 강줄기가 밀양 시내를 휘돌아 앞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밀양 시내 강변 아랑각의 전설을 비롯하여 물고기들이 변하여 돌이 되었다는 만어산 이야기, 재악산 표충사의 땀 흘리는 비석 등 여러 곳에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유역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 밀양시 산내면의 얼음골, 밀양 시내 강변의 영남루(嶺南樓)와 아랑각(阿娘閣) 등이 있다.

**활용강 活龍江 Hwaryonggang**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부르던 구간명칭의 하나이다. 지금 밀양시 내일동에 속한 활성동은 1914년 활용리(活龍里)와 인근 마을을 합하여 활성리가 된 곳이며 마을 앞에 밀양강이 흐른다. ‘활용’은 밀양강을 살 아있는 용으로 풀이한 이름이다.



대동여지도상의 밀양강 발원지 인근

2) 한국의 지식콘텐츠 - 누리미디어(<http://www.krpia.co.kr>)

**해양강 海陽江 Haeyanggang** 조선시대 경상남도 밀양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세종실록지리지』(밀양) 등 여러 문헌에 나오는 이름이며 뇌진이라고도 부른다. 해양강을 낙동강의 별칭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는 밀양강의 하류-낙동강 합류점 일대로 보았으며 명칭의 유래는 알 수 없다.

**뇌진 磊津 Noejin** 조선시대 경상남도 밀양시의 강 하구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뇌'는 돌무더기를 뜻하지만 한편 깨끗하고 험결찬 기상을 나타내므로 맑고 큰 물을 뜻하는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밀양)에는 “해양강을 일명 뇌진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자료로 볼 때 밀양강은 조선시대까지 응천(凝川)으로 불렸으며 근대에 와서 밀양강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원지는 대부분 문헌이 운문산(雲門山)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소호리에 있는 고현산으로 차이가 있다.

밀양강이 유유히 흐르는 밀양시에는 영남루(嶺南樓)가 있다.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있는 영남루는 조선시대 밀양도호부 객사에 속했던 곳으로 손님을 맞거나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고려 공민왕 14년(1365)에 밀양군수 김주(金湊)가 통일신라 때 있었던 영남사라는 절터에 지은 누로, 절 이름을 빌려 영남루라 불렀다. 그 뒤 여러 차례 고치고 전쟁으로 불탄 것을 다시 세웠는데, 지금 건물은 조선 헌종 10년(1844) 밀양부사 이인제가 새로 지은 것이다.

영남루의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기둥은 높이가 높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게 잡아 매우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하여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구성이 특이하다. 또한, 건물 안쪽 윗부분에서 용 조각으로 장식한 건축 부재를 볼 수 있고 천장은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연등천장이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시대 후반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누각이다. 영남루는

조선시대부터 진주 축석루, 평양의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루로 일컬어 왔다.<sup>3)</sup>



밀양강 하류부(영남루 인근)

## 2. 현지답사

밀양강 현지답사는 2013년 3월 16일(토요일) 실시하였다.

2013년 3월 15일 회사에서 퇴근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고현산에서 가깝다고 생각되는 경주로 내달았다. 12시쯤 경주 터미널 인근에서 여관을 잡아 내일 있을 답사를 머리에 그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요즘 기후변화 탓인지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눈이 많이 오는 날씨와 다르게 하늘은 화창하고 기온도 답사하기에 적절한 날씨인 것을 확인하고 차를 몰아 무열왕릉 앞을 지나 건천으로 향하여 삼국유사에 선택여왕이 기지를 발휘하여 백제군을 물리쳤다는 여근곡(女根谷)이라는 입간판을 따라가다가 송선 저수지를 좌로 끼고 당고개를 넘어 산내면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잠깐 여근곡에 대해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건천에서 대구 쪽으로 조금 가면 왼쪽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산줄기가 있는데 이것이 부산(富山)이다. 부산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택여왕이 미리 알아낸 것 세 가지, 즉 지기삼사(知幾三事)에 나오는 여근곡(女根谷)이다. 지형이 여

3)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 <http://www.cha.go.kr/korea/heritage>

자의 국부처럼 생겨서 여근곡이라 불리며, 계곡의 중앙에는 옥문지(玉門池)라는 샘이 하나 있어 그 신기함을 더해준다.

선덕여왕 5년(636), 어느 깊은 겨울에 옥문지에서 개구리 떼가 여러 날 울어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여왕은 정병 2,000명을 뽑아 여근곡을 찾아가서 적병을 치도록 명령하였다.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과연 백제 군사 500명이 때복해 있어 그들을 포위하고 전멸시켰다. 이에 갑탄한 신하들이 왕에게 물었다. 여왕의 말인즉, “개구리가 노한 형상은 병사의 형상인데 때 아닌 겨울에 온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옥문은 여자의 성기이고 이는 음이며 백색이고 서방이다. 따라서 서쪽의 옥문과 같은 지형에 적병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또한, 남자의 성기는 여자의 성기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므로 여근곡에서 적을 쉽게 쳐치할 줄 알았다”고 하였다. 이 전설이 두고두고 내려오는 가운데 이곳을 지나가는 장수와 과거보러 가는 선비들은 길을 돌려 그 앞을 피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1 '선덕여왕지기삼사(善德女王知幾三事)'조에 실린, 이른바 선덕여왕의 예지력과 관련된 세 가지 일화 중 하나이다.

고속버스를 타고 경주로 들어오다 경주터널을 지나면 곧 오른쪽으로 멀리 여근곡이 바라다 보인다. 여근곡이 잘 바라다 보이는 마을 동구에는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밑에 목 없는 돌부처가 여근곡을 살짝 외면하고 앉아 있다.<sup>4)</sup>

여근곡의 생김새를 볼 수 있는 정확히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임에도 답사일정이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여근곡을 뒤져보니 신기할 정도였다.

산내면 면사무소를 지나 동창천(東倉川)을 따라 올라가다가 소호리에서 소호천(蘇湖川)을 따라 차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가니 택지를 만들려는 듯 산을 깎아 만든 평평한 대지 끝에 마을 상수도 수원지가 있고 그 옆으로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차에서 내려 지도를 보니 여기서부터 도보로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간을 보니 벌써 10경이 되었다.

장구를 챙겨 일단 개울로 들어섰다. 멀리 고한산 정상이 보

일 듯 말듯 어슴푸레 계곡이 펼쳐지고 있었다. 날씨는 출발할 때와는 다르게 약간 쌀쌀하였고 제법 많은 물이 개울을 흐르고 있었다. 계곡의 바위는 커다랗고 자갈이 별로 없이 큰 바위만 많이 흘러 내려와서 힘을 쓰며 계곡을 올라가야 했다. 폭은 약 20m 정도이나 양안에 흙 사이로 봉락된 사면이 군데군데 보였다. 주위의 나무는 단풍나무, 참나무 등이 주종이고 새순은 나오기 이전인데 일주일 정도만 있으며 새순이 나올 것으로 보였다.

한 200m 정도 올라가니 오른쪽 종아리가 아파졌다. 하기가 근 일 년 만에 높고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으니 근육이 놀랄 만도 할 것이라 여기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다 쉬기도 하면서 천천히 물소리를 벗 삼아 올라갔다.

약 800m 정도 올라가니 오른쪽 계곡에서 10m 정도 되는 폭포를 이루면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위에는 두꺼운 얼음과 고드름이 많이 달려있고 얼음 밑이 서서히 녹으면서 물을 내 뿜고 있었다. 그 아래는 무속인이 산신께 기도드리는데 쓰이는 촛불을 켜고 바람에 꺼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작은 등합이 여럿 있었으며 작은 움막도 함께 있었는데 사람은 없었다. 계곡의 양안에는 군데군데 잔설이 남아있어 산중 온도가 차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마쯤 올라가니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 나왔다. 지도에도 표시된 지점으로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가파르게 능선을 향해 뻗어 있고 흐르던 물도 바위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계곡의 넓이로 보아 좌측계곡이 더 넓었다.

좌측 계곡을 먼저 오르기로 결정하고 계속 올라갔다.

좀 더 올라가니 지표로 흐르던 물은 끊어지고 바위틈 사이로만 흘러 가느라 소리만 들렸다.

능선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도 물길의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준비한 지도에서 예측한 물길이 아니고 좀 더 왼쪽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달랐다.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비가 많이 오는 기간에 지표면이

4) 답사여행의 길잡이 2 경주편(1997) -한국문화유산단체

“V”자형으로 쏠려 내려갔고 이 때문에 물길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현재 계곡의 바닥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샘처럼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위는 진달래가 많이 있어 진행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여기를 발원지 후보지로 설정하였다.



밀양강 발원지(고현산)

사진을 찍고 이어 GPS좌표를 획득하고 마루금을 향하여 곧바로 올라갔다.

지도에 표기된 고현산의 정상에 다다르니 바람은 많이 부는데 주위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정상의 동쪽으로는 태화강 발원지인 백운산이 멀리 보이고 동북쪽으로는 경주 들녘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쪽으로는 운문산, 가지산 등이 멀리 보이고 남쪽으로는 울산광역시

시 울주군 언양읍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또한, 멀리는 경부고속국도 및 경부고속철도가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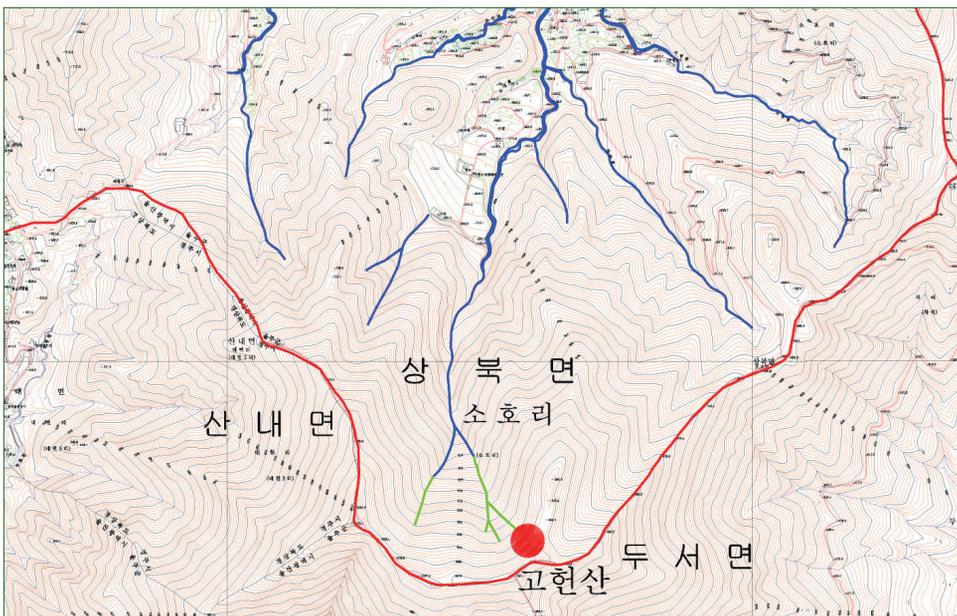
정상에서 한참을 쉬면서 출발할 때 가져온 점심을 먹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 고현산은 영남알프스에서 약간 떨어져 있으나 아끼지기한 맛이 있어 많이 찾는 산이라 하였다. 또한, 낙동정맥의 한 구간으로 백두대간 및 정맥을 찾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이 거쳐 가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언양의 진산으로도 알려져 왔다.

정상의 여러 봉을 차례로 답사 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 못 찾아본 오른쪽의 물길을 찾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은 무릎이 아파 고생했는데 생각해 보니 근 일 년만의 산행 탓도 있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앞으로의 산행은 체력을 보강한 후 해야 할 것 같다.

계곡을 빠져나와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경으로 근 7시간을 산에서 보냈으니 심신이 많이 피로했다. 곧바로 차를 몰아 돌아왔다.

답사 후 사무실에서 GPS 좌표를 지도에 옮기고 도상에서 계산한바 밀양강의 발원지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고현산 북쪽 사면으로 해발 980m 지점의 북위 35°38'35", 동경 129°05'22"(GRS80좌표계)로 확인되었다. 🌐



밀양강 발원지